

어리석은 자는 즉시 분노를 표

하지만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눈감아준다(잠언 12:16) 속담 이야기, Ted Hildebrandt와 Chatgpt 지음

소문이 불보다 빠르게 퍼지고 자존심이 명예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북적이는 윈드미어 마을에, 엘리아스라는 크고 근육질의 남자가 살았습니다. 그는 힘과 재치 있는 손놀림, 그리고 안타깝게도 급한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 제대로 숨기지 못한 웃음 한마디에도 엘리아스의 분노는 마치 성냥불처럼 활활 타올랐습니다.

어느 선선한 가을 아침, 마을 광장은 추수감사절 준비로 북적였다. 가판대가 설치되고, 창틀에는 파이가 식어가고, 아이들은 수레 사이로 깔깔대며 뛰어다녔다. 무거운 사과 바구니를 어깨에 메고 군중 사이를 행진하던 엘리아스는 우연히 젊은이들이 수군거리며 킁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조심해!" 한 사람이 엘리아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며 소리쳤다. "늙은 황소가 목초지에서 탈출했어!"

뒤이어 터진 웃음소리는 어떤 가시보다도 날카로웠다. 엘리아스는 얼굴이 붉어진 채 돌아서서 그들에게 잊지 못할 교훈을 가르쳐 줄 준비를 했다. 그의 주먹이 옆구리를 째 쥐었고, 잠시 동안 광장 전체가 숨을 죽인 듯했다.

하지만 그가 행동하기도 전에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아스! 한마디만 해주세요."

마을 장로 로완이었다. 나이 들어 허리가 굽었지만, 마구처럼 날카로운 재치를 지닌 로완은 그에게 손짓했다. 엘리아스는 마지못해 비웃는 젊은이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굴욕감에 불타오르며 복수심에 불타는 노인에게로 향했다.

로완은 조용히 말하며 눈을 반짝였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고, 그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며, 그들의 웃음을 자아낼 수도 있고, 아니면 미소를 지으며 그냥 지나가면서, 왜 그들의 날카로운 농담이 실패했는지 의아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엘리아스는 눈살을 찌푸렸다. "왜 그들이 나를 모욕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내버려 두어야 하지?"

로완이 낄낄거렸다. "모든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모든 모욕에 대응할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옛 속담에도 '어리석은 자는 즉시 분노를 표출하지만, 현명한 자는 모욕을 눈감아준다'라고 했잖아요."

엘리아스는 망설였다. 그의 분노는 마치 가슴 속에서 터질 듯한 불덩어리 같았다. 하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볼게요."

축제가 깊어갈수록, 같은 무리의 소년들이 두 번째로 야유를 보냈다. 엘리아스는 그 말을 알아챘다. 마치 황소처럼 서툴다는 말이었다. 익숙한 열기가 불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저 미소만 지으며 모자를 치켜올리고는 마치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무시하며 계속해서 상자들을 쌓아 올렸다.

소년들은 눈을 깜빡이며 얼굴에 혼란스러움이 스쳤다. 한 소년이 다른 소년을 쿡 찔렀다. "우리 말을 못 들었나 봐." 다른 소년이 속삭였다. 웃음소리가 잦아들더니 어색한 침묵 속으로 사라졌다.

저녁 무렵, 엘리아스의 예상치 못한 침착함이 소문으로 퍼졌다. 어떤 이들은 그의 자제력을 칭찬했고, 어떤 이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신중함에 대해 추측했다.

심지어 젊은이들조차 자신들의 조롱이 빗나갔다는 것을 깨닫고는 곧 흥미를 잃고 자리를 떠났다.

나중에 로완은 엘리아스가 불 옆에서 사이다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빨리 배웠군." 노인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엘리아스는 어깨를 으쓱했다. "쉽지 않았어."

"옳은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 로완이 말했다. 그는 건배하듯 잔을 들어 올렸다. "신중함이라는 절제에 걸맞게, 힘들게 얻어낸, 그리고 잘 지켜온 것을."

엘리아스는 옛 마을 현자의 존경에 미소 지었다. 어쩌면 진정한 힘은 주먹으로 적을 짓밟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분노에 차 복수하려 드는 것처럼 분노에 차 폭발하지 않고, 오히려 잠언에서 그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분별력과 신중함을 보이는 데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즉시 드러내지만,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참는다"(잠언 12:16).